



## 1993/94년 미국 옥수수 생산, 재고 대폭 감소

USDA가 지난 9일에 발표한 11월 현재 작황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 10월달 추정치보다 1,165만 톤이나 적은 1억 6,519만톤에 불과할 것이라 한다.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치 1억 8,960만 톤 보다 13%, 사상 최대의 풍작이었던 지난 해의 2억 4,078만톤에 비해서는 무려 31.4%나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1993/94곡물년도의 기말재고 또한 지난 5개년 평균인 4,040만톤과 1992/93의 옥수수 기말재고 즉 1993/94년도이월량 5,367만톤의 각각 55.4%와 41.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975/76년 이래 가장 적은 2,238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국내소비 및 수출을 포함한 총수요량의 11.4%로서 과거 5년간 평균인 18.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 및 재고감소로 인해 1993/94년도의 미국내 옥수수 톤당 농가수취가격은 지난 10월에 예측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92불 59센트에서 108불 35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옥수수 생산 및 재고 감소로 인해 1993/94년도 전세계 옥수수 및 사료곡물의 기말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SDA는 1993/94년도말의 전세계 사료곡물 재고는 1983/84년 이래 최하위인 1억 1,433만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 크게 증가

9월 한달동안 양돈배합사료 생산량은 지난 8월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양돈배합사료 전체 생산량은 38만6천7백여톤으로 전년동기의 38만8천6백여톤보다 0.51%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8월의 35만3천여톤에 비해 9.32%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갓난돼지, 젓먹이 돼지, 젓뎀돼지, 육성돈, 비육돈 전기, 임신돈, 포유돈, 후보종돈, 종돈용사료 등이 전반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했으나 비육돈후기사료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1백13만3천3백여톤으로 전년동기의 1백6만5천9백톤보다 6.33% 증가했고 8월의 1백5만8천4백톤에 비해서도 7.08% 증가했다.

미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및 전망(1991/92~1993/4)

(단위 : 100만MT)

	공급			국내소비		수출	기말재고
	기초재고	생산	수입	사료	총소비		
1991/'92	38.64	189.89	0.50	123.91	160.84	40.24	27.95
1992/'93	27.95	240.78	0.18	134.60	172.99	42.25	53.67
1993/'94							
10월 전망	53.67	176.84	0.25	128.28	167.65	35.56	27.55
11월 전망	53.67	165.19	0.38	123.20	162.57	34.29	22.38

## 미국의 대일 돈육수출량 크게 증가

미국의 6월 돼지고기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5%가 증가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량이 26.8%나 증가해 전체 수출량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미국산 돈육의 '92년도 대일 수출은 지육환산기준 9만6천톤으로 '91년에 비해 무려 73%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미국산 돈육의 대일 수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92년 후반기에 미국내의 생산과잉과 대만산 돼지고기 가격이 미국산보다 비싼 점 등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특히 냉동 돼지고기의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돼지 사육두수 사상 최고

—9월말 현재 600만두 육박—

돼지 사육두수가 올 9월1일 현재 5백99만8천여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가축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9월1일 현재 전체 돼지 사육마리수는 5백99만8천마리로 6월의 5백58만8천마리보다는 7.3%의 41만마리, 지금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의 5백66만4천마리보다는 5.9%인 33만4천마리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 9월까지 산지돼지 시세의 강보합세로 인한 사육열기의 고조로 풀이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 3월의 5백16만8천마리보다 무려 83만두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어미돼지 사육마리수는 9월 현재 76만9천마리로 6월의 76만7천마리보다 0.3%인 2천두 증가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4.1%, 3~6월중의 7.1%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육농가수는 9월 현재 7만3천호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31.8%인 3만4천가구가 줄어들었다. 특히 호당 평균사육마리수는 지난해 12월 55.2두, 올해 3월 59.3두, 6월 72.6두, 9월 82.2두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육규모별 마리수면에서 100~4,999두사이의 사육마리수는 4,709,628두로 전체 사육마리수의 78.5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축종보다 전업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일본 농수산물시장서 한국산 점유율 급락

—중국, 엔고 영향 및 저가격 공세로 대일수출 급증—

닭고기 및 어류 등 중국산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주요 농산물 공급국이었던 한국, 태국 등의 일본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급속한 엔고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일본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닭고기 공장, 수산물 양식장 등이 속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중국에 의해 촉발된 수출국간의 가격인하 경쟁은 향후 일본산 농수산물 가격에 대한 커다란 파란요인으로 작용할 양상이다.

금년 1~8월중 중국의 대일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동

◇'91~'93년도 분기별 돼지통계조사 결과

(단위 : 천호, 천마리)

구분	'91				'92				'93		
	3	6	9	12	3	6	9	12	3	6	9
사육호수	126	126	128	129	124	114	107	99	87	77	73
사육마리수	4,487	4,636	5,069	5,046	5,062	5,273	5,664	5,463	5,168	5,588	5,998
호당마리수	35.6	36.8	39.6	39.1	40.8	46.2	52.9	55.2	59.3	72.6	82.2

기대비 40% 증가한 5만3천톤으로 국내 수입 닭고기시장의 약 20%를 점했다. 가격은 현재 톤당 2,100불(C&F) 전후로 지금까지 일본의 수입닭고기의 40% 가까이 접하고 있던 태국산보다 약 5백불이나 싸다. 이 때문에 태국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로 급락하고 내년에는 중국산이 일본내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시에 중국의 저가 공세는 국내 닭고기의 약 70%를 점하는 일본산에도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 연중 10월은 닭고기의 성수기로 예년 가격이 kg당 6백엔 전후로 급상승하곤 했으나 현재 도매가격(도쿄기준)은 551엔대로 최저상태이다.

중국 수산물의 대일 수출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본 수산물수입협회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비 11.8% 증가한 22만8천톤으로 금년에는 더욱 증가해 과거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척추불구돼지 기공술로 회복

척추가 불구된 돼지를 기공술로 완전히 완치시켜 신기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북경에서 열린 제2차 세계의학기공학회 학술회의에서는 중국의 의학기공의 임상실험 사례 발표 중 불구가 된 돼지의 척추를 八掛循導功(팔괘순도공)기공술로 회복시키는 시범이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소속 의학기공연구팀이 행한 이 실험은 16마리의 실험돼지의 척추를 불구로 만든 뒤 A, B, C조로 나누어 하루에 A조의 돼지에게 여러차례, B조의 돼지에게 2~3차례 기공을 시술하고 C조의 돼지에는 시술을 하지 않았다.

이 결과 처음에는 모두 걷지 못할 정도로 척추손상을

입었던 돼지들 중 A조의 돼지들은 9일만에 다시 걸었고 B조의 돼지들은 3%가 신경을 회복한 반면 시술을 받지 못한 C조의 돼지들은 단 한마리도 걷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 수입농축산물 검역기능 대폭 강화

— '92년부터 5년동안 총 181억 투자—

농림수산부는 급속히 늘어나는 수입농축산물에 있어서 항생제 등 유해잔류 물질에 대한 식품안전성과 수입 지역 다변화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물량 증가로 외래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그리고 국제수준의 동물검역 및 식품안전 수준에 발맞추어서 나가기 위해 '92년부터 '96년까지 5년동안 동물검역소 108억, 가축위생연구소 73억 등 총 1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검역사업 세부추진 내용은 수입동물검사항목을 '90년 소, 돼지, 닭, 칠면조 등 22개에서 올해에는 산양, 면양, 토끼, 사슴 등 34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육류의 잔류물질검사를 '90년 1개항목에서 '93년에는 항생제, 항균제, 중금속, 농약 등 29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정보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동물검사 실태를 현지조사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 등 국제기구회의에 참석하여 전염병 발생정보 등을 수집하며, 수입 육류의 수출국 작업장 시설 및 위생상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동물 검역소는 본소 4과, 5개 지소, 2개 출장소에 16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증가, 품목의 다양화, 교역국의 다변화로 전염병 및 유해 잔류물질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225명을 증원할

#### ◇연도별 검역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도별	'92 실적	'93실적	'94확정	'95계획	'96계획	계
동물검역소	13	14	25	28	28	108
가축위생연구소	3	2	19	25	23	73
예산액	16	16	44	53	51	181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강화 추진 ▲검역 중 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관리요령 제정 ▲수출용 원자재(원피)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육류잔류물질 허용 항목 및 검사대상 확대 설정 ▲UR협상 등 국제기준에 조화되도록 검역관련규정 계속 연구검토 등 검역행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검역기술 향상을 꾀하기 위해 검역관을 기술훈련시켜 전문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 양산협, 제3회 돈육소비촉진 홍보

— 10월27일~29일, 진주산업대에서 —

양돈산학협동연구회(회장: 최상백)는 진주산업대 국제축산개발학과와 공동으로 제3회 돈육소비촉진 홍보활동을 대학축제기간인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펼쳐 대학생 및 진주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본회와 (주)대경협, (주)제일제당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돈육생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수입생산물의 국내 시장잠식을 저지하고 돈육의 식품상 우수성을 재인식시켜 돈육의 소비촉진을 강화하는데 뜻이 있다.

행사 주요내용은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육가공회사의 돈육제품 전시, 국제축산개발학과 학생들이 만든 돈육제품 전시, 육가공 관련 부재료 및 포장재 전시 등의 전시행사가 있었으며, 홍보행사로는 즉석 바베큐가공 및 홍보, 국제축산개발학과 제품 전시홍보, 돈육의 우수성 홍보 등이 있었다.

또한 “축산식품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돈육가공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양돈인과 양돈관련

인사 등의 관심을 끌었다.

## 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개최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회장: 김동열)는 16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농어민후계자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를 갖고 정부에 대해 추곡 제값수매, 냉해보상, NTC품목 개방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국회농림수산위 이길재 민주당의원, 이규태 의원, 김동열 회장, 윤정석 전농 의장, 김성훈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농어민후계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금년의 냉해피해는 지난 '80년 대흉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흉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추곡가 3% 인상, 추곡수매량 9백만섬 확정안은 6백만농민을 분개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최소한 수매가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16.77% 인상하고 수매량도 1천2백만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2월로 다가온 UR협상 최종시한과 내년 3월로 다가온 BOP 2차 농산물개방 목록 제출시한과 관련, 최근 정부가 쌀을 제외한 14개 NTC품목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 농민에 대한 말살 정책이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과도 전면 대치되는 농업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농어민후계자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각 도별 결의사항 및 피해·투쟁보고를 한 후 동국대를 출발, 동대문과 종로를 거쳐 탑골공원까지 평화행진을 전개했다. ●